

##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연원

전 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 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128페이지)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창조하여왔다.

그러나 주변나라의 일부 연구자들속에서는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자기의 력사를 창조한 우리 민족의 력사 특히 삼국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구려건국의 력사적연원을 외곡하고있다.

삼국시기 우리 민족의 국가들을 선도한 고구려건국의 력사적연원을 정확히 밝히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연원이 어디에 근본바탕을 두고있었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삼국이 다같이 단군조선에 건국연원을 둔 나라들이였다는것을 서술하려고 한다.

삼국은 건국연원을 단군조선에 두고있는데서 공통성을 가진다.

고구려, 백제의 건국연원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는 다같이 B.C.15세기에 성립된 고대국가 구려, 부여에 건국연원을 두고있을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B.C.30세기초에 세워진 단군조선에까지 연원을 두고있었다.

삼국의 성립이전인 B.C.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단군조선은 분열되면서 그 판도에는 후조선과 부여, 구려가 각각 성립되였다. 그리고 B.C.12세기에 조선반도의 중남부지역에는 고대국가 진국이 성립되였다.

부여에서 활동하던 동명왕을 비롯한 세력집단은 B.C.3세기초에 구려지역으로 이동하여 세력집단을 형성한 후 B.C.277년에 건국을 이룩하였다.

고구려의 건국을 보여주는 력사자료들에는 고구려가 동부여에 있던 동명왕을 비롯한 세력집단이 부여를 탈출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워진 나라로 서술되어있다. (《삼국사기》 권제13 고구려본기 제1 시조동명성왕)

중국의 력사책인 《삼국지》 등에도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서 언어와 여러가지 일이 부여와 같다.》(《삼국지》 권30 위서30 고구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위서》 100 렬전88 고구려), 《고려(고구려)의 조상은 부여로부터 나왔다.》(《수서》 81 렬전46 고구려)라고 서술되어있다.

부여에서 남하한 동명왕세력은 구려지역으로 이동하여 세력을 확대한 후 고구려의 건국을 선포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건국은 부여에서 구려에 일차적으로 그 연원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부여에 건국연원을 둔 나라였다. 《백제의 조상은 고려(고구려)에서 나왔다.》(《수서》 81 렬전 46 백제)라는 자료는 그것을 증명하여준다.

백제는 고구려에 연원을 두고있었으나 한편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조상을 부여에서 찾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 18년, 《위서》 제100 렬전 88 백제)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부여는 B. C. 15세기 중엽에 단군조선이 분립되면서 생겨난 국가의 하나이므로 부여는 단군조선의 주민과 령토안에서 건국을 이룩하고 자기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연원이 부여와 구려에 있었으며 백제의 건국연원 역시 고구려와 부여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 나라들의 건국연원을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것은 부여에 선행한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 단군조선에 두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사》와 《조선단대사》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도서들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다.

결국 고구려와 백제는 그 뿌리를 단군조선에 두고 성립된 나라 다시말하여 그 건국연원을 다같이 단군조선에 둔 나라들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건국연원이 단군조선에 있었다는것은 력사자료들에서 나타난다.

고려시기의 력사책인 《삼국유사》의 왕력편에는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써놓았다. 시간적으로 볼 때 B.C.277년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B.C.30세기 초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아들로는 될수 없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도 이에 대하여 계산을 못했을수 없으며 그가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서술한것은 고구려의 건국연원이 단군조선에 있다는것 다시말하여 국가의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제왕운기》의 저자 리승휴도 자기의 시에서 《단군본기》와 《동명본기》를 인용하면서 부여와 고구려와의 관계 그리고 고구려가 단군을 전승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한편 어떤 자료에는 고구려왕을 《조선왕》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신라도 그 건국연원을 고조선(단군조선)에 두고있었다.

신라의 건국이전시기부터 그 지역에는 조선유민들이 이미 고대국가를 세우고있었다.

《삼국사기》(권 제1 신라본기 제1)에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속에 6촌을》만들었다는 자료는 그것을 보여준다.

조선유민들은 조선남부지역에 진국(진국은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진 고대국가였다.)을 세웠는데 진한에 속하여있던 사로국에서 먼저 봉건화과정이 시작되고 이 지역으로 북방의 고구려사람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사로국에서의 봉건화과정은 촉진되었으며 1세기초 중엽에 이르러 신라봉건국가가 성립되었다.

《수서》(신라전), 《북사》(동이전)에는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를 격파하자 그 왕이 옥저로 달아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남아있던자들이 마침내 신라가 되었다.》라고 되어있으며 또 신라의 왕은 《백제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하여 신라로 들어가 그 나라의 왕이》되었다고 서술되어있다.

물론 이 자료는 력사적사실과는 맞지 않는것이나 신라를 고구려, 백제와 련결시켜 놓은것은 의미가 있는것이다.

이처럼 신라의 건국과정을 보여주는 옛 역사자료와 선행연구성과들은 신라가 진국과 고조선에 건국연원을 두고있는 나라라는것을 증명하여준다.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외국자료들에도 삼국의 사람들을 다같이 조선사람으로 불렀으며 지도에도 삼국을 조선으로 표기한것은 삼국의 연원상공통성을 다시금 강조하여준다.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응신 7년)에 《고구려사람, 백제사람, 가야사람, 신라사람이(일본에) 왔다. 이때 이 여러 가라히또(한인 즉 조선사람)들을 거느려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로부터 그 못을 가라히또 못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자료는 그 대표적인 자료이다.

한편 중국에서 2004년에 출판된 《중국고대지도집》에는 우리 나라 지역을 《조선》으로 표기하면서 옛왕조의 명칭으로 고려(고구려), 백제, 신라를 밝혀놓았다. 그리고 《중화고지도진품선집》에 들어있는 송나라시대의 지도에도 조선을 《동이》라고 표기하고 그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또 표기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지도편찬자들이 조선을 표기할 때 삼국은 조선에 연원을 둔 나라라는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표기하였다고 볼수 있다.

모든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연원이 다같이 단군조선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다같이 단군조선에 연원, 뿌리를 두고있는 나라라면 세나라는 사회생활의 대부분에서 명백히 공통성을 가지고있어야 할것이다.

실지 역사책들에는 삼국의 공통성을 기록해놓아 이 나라들의 역사적연원을 반증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특히 언어의 공통성과 옷차림의 공통성, 풍습의 공통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통하여 설명할수 있게 한다.

5세기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보낸 중 도림이 백제의 개로왕과 바둑을 둘 때나 신라의 거칠부가 고구려의 중인 해랑의 불법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사람인 선도해로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통역이 없이 대화를 진행한것은 세나라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서로 의사가 통하는것이였음을 말해준다.((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권 제41 렬전 제1 김유신, 권 제44 렬전4 거칠부)

중국의 역사책들에도 삼국은 언어와 옷차림, 풍습이 《같다(同)》 또 《대략 같다(略同)》, 《류사하다》라고 서술한것이 적지 않게 보이고있다.

실례로 《량서》에는 백제는 《언어, 복장이 고려(고구려)와 같다.》(《량서》 54 렬전48 백제)라고 서술되어있으며 《북사》와 《위서》에는 백제는 《음식과 옷이 고구려와 같다》(《북사》동이 백제전, 《위서》 100 렬전88 백제전) 그리고 《수서》에는 《그 옷이 고려(고구려)와 대체로 같다.》, 《상제는 고려(고구려)와 같다.》(《수서》 81 렬전46 백제)라고 서술되어있다. 또한 《량서》에는 신라사람들이 《절을 하는것과 행동이 고구려와 류사하다.》(《량서》 54 렬전48 신라)라고 한 자료들을 들수 있다. 이 자료들은 명백히 언어와 옷차림, 풍습의 면에서 삼국이 공통성을 가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준다.

단군조선을 근본으로 하는 삼국의 건국연원은 그 이후 우리 민족국가들인 발해와 후기신라를 이어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로 전승되어갔다.

역사는 삼국의 건국연원이 단군조선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삼국의 각 나라

들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통하여 여실히 반증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건국연원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라버리려는 역사외곡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준다.

우리는 삼국의 역사를 비롯하여 우리의 민족사를 외곡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단군조선을 건국연원으로 하는 민족사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총진군하는 우리 인민에게 조선민족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인식시켜나가야 할것이다.